

식품소비지출의 불균등도와 양극화 분석

이계임* 김성용** 한혜성***

Keywords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다극화(polarization), 양극화(bi-polarization), 소득 5분위배율, 불균등도(inequality), EGR지수(Esteban, Gradin and Ra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ether the inequality and bi-polarization of income is reflected in the expenditure on food consumption. The inequality index is estimated by measuring the proportion of calculation, and the change of bi-polarization is estimated by the EGR method. Results show that the inequality and EGR index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lthough the inequality index of expenditures on food consumption has increased for a little while in 1998, they have not showed considerable changes. And the EGR index has not showed a remarkable increasing tendency since the period of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case of food, the Gini's coefficient has a tendency to decrease in common, and in particular, the food service industry has considerably decreased to 0.43 in 2006 from 0.78 in 1982. Generally, many food items show an extremity of bi-polarization since the period of foreign exchange crisis, but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ase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it showed of improvement with reference to bi-polarization but deteriorated again in 2006. Therefore,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due to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system, income inequality and bi-polarization index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after 2003 in Korea. However, the change of income distribution does not have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expenditure of food consumption that has a feature of necessities.

차례

- | | |
|-----------------------|-----------------|
| 1. 서론 | 4. 식품류별 불균등도 분석 |
| 2. 추정 방법 | 5. 결론 |
| 3. 식품소비의 불균등도와 양극화 추이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및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악화되었던 경제지표가 2000년대 들어 상당 수준 호전되었으나, 소득불균등 정도가 확대되고 소득분포가 양극단으로 모이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이후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소득불균등에 비해 훨씬 진행된 사실을 입증한 연구로는 신동균·전병유(2005), 전병유 외(2006), 강신욱 외(2006)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양극화 지수와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서로 다른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변화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경준(2007b)은 소득불균등도의 변화와 양극화 지수의 추정치는 통계학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여 앞의 연구들과 차별된다.

소득의 불균등도는 계층별 소득크기의 분포 격차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니계수와 분위배율 등으로 추정된다. 불균등도는 소득분포에서 각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분포상의 이질 집단의 존재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거나 중산층이 축소 또는 붕괴되는 현상 등 소득분포 자체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양극화는 중간층이 감소하면서 전체가 두개의 극점을 중심으로 양극단으로 집약화(clustered)되는 현상으로 사회의 내적 갈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양극화 추정 시 많이 적용되는 방법은 울푸슨 지수, ER, EGR지수 등으로 극화 지수값이 높을 경우 집단 간 충돌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양극화는 소득분포상 집단을 임의로 2개로 구분해야 하므로 추정 시 구간의 구분 개수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지수만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소득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구조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불균등 지수와 양극화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의 불균등과 양극화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슈화 되면서 소득뿐 아니라 노동시장, 영양상태, 주거, 의료비 부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불균등과 양극화에 대한 검증이 시도되었다.¹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양극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양극화 논의가 실제보다 과잉된 경향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지출은 가계의 항상소득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로 간주되며 가구구성과 가격 변화가 후생에 주는 영향을 감안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을 감안한 불균등도와 양극화

¹ 안종범·석상훈(2006)

분석에 보다 적합하다.² 반면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분배구조를 분석한 예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균등과 양극화 분석을 소비지출과 식품소비지출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연구에서 주장해 온 사회전반의 양극화 경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식품류별로 불균등도를 추정하고, 식품비 전체의 불균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향후 식품소비 불균등도 추이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2. 추정방법

2.1. 분석모형

2.1.1. 불균등 지수

소득 및 식료품의 불균등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와 소득 5분위 배율을 계측하였다. 지니계수는 로렌즈곡선과 소득의 균등분배 균등선(45°) 사이의 면적을 균등선과 균등선 이하의 전체 면적으로 나눈 값인데, 계측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³ 또한 불평등 지수는 4가지 공리(axiom)를 충족해야 하는데, 지니계수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다.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지니계수는 상대적 불균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절대평균격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값이다.⁵

$$\text{상대적 Gini's coefficient} =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quad (1)^6$$

² 김성용 · 이계임(2002)

³ 또 다른 특징은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소득비중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임(배성종 외(2006)). 하지만 같은 지니계수라도 저소득층의 점유율이 높을수도 있고 반대로 낮을 수도 있어 소득분포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강신욱 외(2006)).

⁴ 익명성(anonymity), 소득동차성(income homogeneity), 인구동차성(population homogeneity), 피구-달톤 원칙(Pigou-Dalton principle)의 4가지 조건임(유경준(2007a)).

⁵ 지니계수는 소득이 완전히 균등 분배될 경우 0, 완전 불평등할 경우 1임.

⁶ 확률분포로부터 나오는 두 독립된 수치에 대한 차이값의 절대치 평균을 평균격차(mean difference) 또는 지니평균격차라고 함($\Delta = \frac{1}{n^2} \sum_{i=1}^n \sum_{j=1}^n |y_i - y_j|$). 절대적 지니계수나 상대적 지니계

5분위배율은 소득계층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최상위 계층인 5분위의 소득을 최하위계층인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다른 측정 지수에 비해 간단히 추정할 수 있으며, 결과 해석이 간편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균등 지수로는 중산층의 소득 불균등도를 파악하기 힘들며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1.2. 양극화 지수

양극화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수적인 다극화 측정법을 제안한 Esteban and Ray (1994)는 다음과 같이 다극화 함수를 가정하였다. 전제조건은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집단 내 동질성이 강할수록, 집단 간 이질성이 강할수록 상당한 규모를 갖춘 집단의 수가 적을수록 양극화는 커진다는 것이다. 특정 사회의 구성원수를 n , 소득의 자연 대수 y (개인의 모든 특성을 대표), 개인의 분포함수 $(\pi, y) = (\pi_1 \dots \pi_n; y_1 \dots y_n)$ 의 집합(단 π_i 는 개인 y_i 의 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척도로서 (π, y) 와 관련된 총인구는 $\sum_{i=1}^n \pi_i$)을 D 라고 할 때 양극화 척도 ER 은 D 에서 양의 실수의 집합 R_+ 로 정의하였다

($ER: D \rightarrow R_+$).⁷ 이러한 가정을 만족한 것이 식(2)로 함수 $T(I, a)$ 는 y_i 가 y_j 에 느끼는 유효적대감(effective antagonism)이며 $I(\pi_i)$ 는 y_i 가 느끼는 동질감(identification), $a(\delta(y_i, y_j))$ ⁸는 소외감의 크기를 나타낸다.⁹

$$P(\pi, y) = \sum_{i=1}^n \sum_{j=1}^n \pi_i \pi_j T(I(\pi_i), a(\delta(y_i, y_j))) \quad (2)$$

Esteban and Ray(1994)는 이 함수에서 두 가지 제약조건을 부여하였다. 동질성 부문에서는 한 개인은 자신과 동일한 소득 수준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본인이 느끼는 동질성은 더 커지며, 소외함수를 개인 간의 소득차로 정의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차이가 날수록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Esteban and

수 모두 수치의 차이값은 한번만 계산하여 구하기 때문에 평균격차는 지니계수의 2배 값을 가짐. 따라서 절대적 지니계수는 절대적 지니계수 = $\frac{1}{2n^2} \sum_{i=1}^n \sum_{j=1}^n |y_i - y_j|$ 로 나타낼 수 있음(유경준 (2007a)).

⁷ 최희갑(2002)

⁸ $\delta(y_i, y_j) = |y_i - y_j|$

⁹ 자세한 설명은 Esteban과 Ray(1994) 참조

Ray 지수(P^* =ER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π_i^α 는 i 가 갖는 동질감(i 계층의 인구 비중 $i = 1, 2, 3, \dots, n$)이며 $|y_i - y_j|$ 는 소외감, $\pi_j|y_i - y_j|$ 는 유효적대감을 뜻한다. 여기서 다극화 지수의 민감도(polarization sensitivity) α 가 0일 경우 지니계수값과 동일하며 민감도 값이 클수록 불평등 지수값과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 α 가 주어진 공리를 만족 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0 이상 1.6 이하 값이어야 한다.

$$P^*(\pi, y) = K \sum_{i=1}^n \sum_{j=1}^n \pi_i^{1+\alpha} \pi_j |y_i - y_j| \quad (3)$$

단 $K > 0$, $\alpha \in (0, \alpha^*]$, $\alpha^* \simeq 1.6$

그러나 ER지수는 원래 연속밀도함수로 표시되는 소득분포를 N개 극점을 중심으로 표시함으로써 다극화를 과대포장하는 문제점이 있다.¹⁰ 또한 ER지수는 전체가 이미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유도된 것으로 이미 외생적으로 집단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극화 정도를 추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집단을 분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¹¹ 따라서 근사에 의한 오차($\epsilon(f, p)$)를 최소화하는 p 를 찾아 최적의 극점을 구해야 한다. 이는 두 그룹내에서 두 소득값의 차이를 평균 낸 것과 같다. 최적 p^* 는 식(4)를 만족해야 하는데, $G(\cdot)$ 는 괄호안의 분포에 해당하는 지니계수를 뜻한다. 이렇게 양극화 지수에 양집단의 극화를 과대평가하는 오차를 최소화시킨 측정 방법이 EGR(개선된 ER지수)지수이다<식 (6)참조>.¹²

$$\epsilon(f, p) = 0.5 \sum_i \int_{y_{i-1}}^y \int_{y_{i-1}}^i |x - z| f(x) f(z) dx dz \quad (4)$$

$$\epsilon(f, p) = G(f) - G(p^*) \quad (5)$$

$$P^{**}(f; \alpha, \beta) = ER(\alpha, p^*) - \beta \epsilon(f, p^*) \quad (6)^{13}$$

¹⁰ 신관호 · 신동균(2007)

¹¹ 유경준(2007a)

¹² 식(4)~(6) 내용은 신관호 · 신동균(2007) 정리

¹³ $y_i^* = \lambda \mu_i^* + (1 - \lambda) \mu_{i+1}^*$, $\lambda = \frac{\pi_i^*}{\pi_i^* + \pi_{i+1}^*}$ 에서 $y_i^*, \pi_i^*, \lambda_i^*$ 는 최적의 p^* 를 대응하는 값을 뜻함. 이식에 의하면 극점의 위치를 선택할 때 인접한 두 구간을 나누는 소득수준은 두 구간의 조건부 평균 값들의 가중평균이어야 하며, 이 때 위에서 정의한 오차가 최소화됨을 의미함(신관호 · 신동균(2007)).

2.1.3. 품목별 기여율 추정방법

식료품류별로 세분화하여 불균등도를 도출하고 동시에 품목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니계수분해법을 적용하였다. 총소비지출에 대한 지니계수는 식 (7)과 같이 총소비지출의 불균등도에 대한 식품비 지출항목별 기여도(첫 번째 항), 비식품비 지출항목별 기여도(두 번째 항)로 분해된다.¹⁴

$$G = \sum_{i=1}^K \left[\frac{\text{cov}(x_i, F)}{\text{cov}(x_i, F_i)} \cdot \frac{2\text{cov}(x_i, F_i)}{m_i} \cdot \frac{m_i}{m} \right] + \sum_{j=1}^N \left[\frac{\text{cov}(y_j, F)}{\text{cov}(y_j, F_j)} \cdot \frac{2\text{cov}(y_j, F_j)}{m_j} \cdot \frac{m_j}{m} \right]$$

$$= \sum_{i=1}^K R_i G_i S_i + \sum_{j=1}^N R_j G_j S_j \quad (7)$$

$R_{i(j)}$: 지출항목 $i(j)$ 와 총소비지출 X 간의 지니상관계수,

$G_{i(j)}$: 지출항목 $i(j)$ 의 지니계수, $S_{i(j)}$: 지출항목 $i(j)$ 의 비율

2.2. 분석자료

분석에는 1982~2006년간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청 가계조사에서는 가구단위로 월평균 식품비가 조사되기 때문에 가구당 가구원 수와 가족구성에 따라서 식품비 지출에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성인등가척도(Equivalence Scale)로 환산된 1인당 식품비 지출액을 적용하였다.¹⁵

$$x_k^* = \frac{x_k}{(A_k + cK_k)^\theta} \quad (8)$$

θ = 가구원 수에 대한 탄력성(0.5), x_k : k 번째 가구의 식품 소비지출, A_k, K_k : k 번째 가구의 성인수와 자녀수

식품 소비지출 관련 불균등도와 양극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식료품비 지출액을 이용 하였으며 식품류별 세부 항목은 곡물,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차·음료·주류, 외식으로 구분하였다.

¹⁴ 김성용(2006), Lerman과 Yitzhaki(1985) 참조

¹⁵ Barrett와 Crossley(2000)

3. 식품소비의 불균등도와 양극화 추이

3.1. 식료품비의 불균등도

소득, 소비지출, 식료품비에 대한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 상승하여 불균등도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반면 소비지출과 식료품비는 1998년 일시적으로 불균등도가 상승하였으나, 그 후 이전수준을 회복하거나 불균등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비지출과 식료품비는 소득과 달리 외환위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지출 및 식료품비의 지니계수는 2006년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도에 내수불황과 식료품비·주거비·공공요금 등의 상승이 겹친 탓으로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된 경제상황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불균등도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비지출의 지니계수는 소득보다 작으며, 식료품비에 비해서는 큰 것으로 추정되어 불균등도는 소득, 소비지출, 식료품비 순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1. 불균등도 추이(198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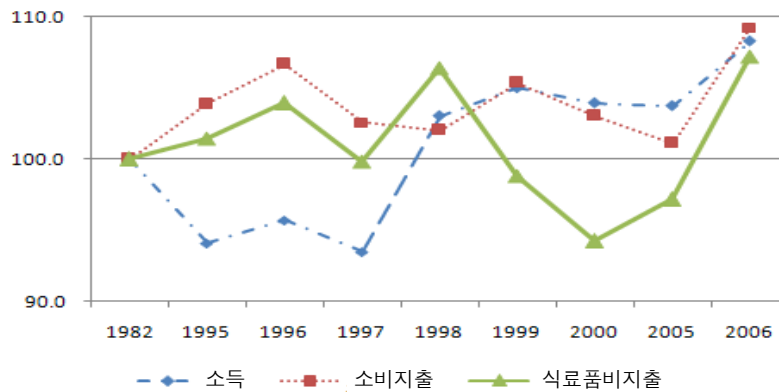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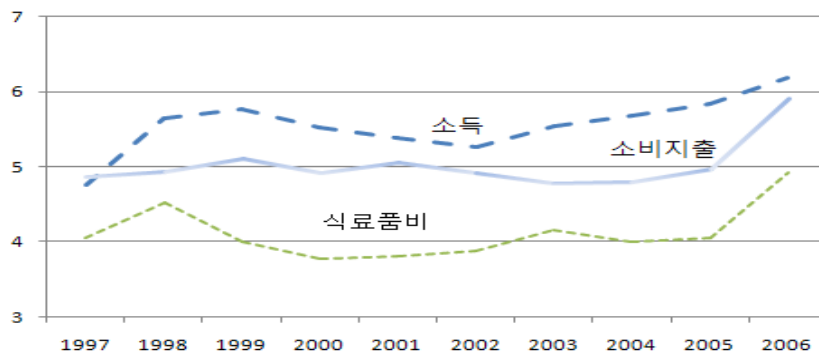
표 1.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 추이

	소득	소비지출	식료품비
1982	0.33	0.31	0.27
1985	0.33	0.32	0.28
1990	0.30	0.33	0.28
1995	0.31	0.33	0.28
1996	0.31	0.33	0.28
1997	0.31	0.32	0.27
1998	0.34	0.32	0.29
1999	0.34	0.33	0.27
2000	0.34	0.32	0.26
2001	0.33	0.33	0.26
2002	0.33	0.32	0.26
2003	0.33	0.31	0.27
2004	0.33	0.31	0.26
2005	0.34	0.32	0.27
2006	0.35	0.34	0.29
1985~1997 평균 지수	0.31	0.32	0.28
1998~2006 평균 지수	0.34	0.32	0.27

주: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의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전가구(1인 가구 포함)를 분석대상으로 삼음.

한편, 5분위 소득배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4.76배에서 1999년에 5.65배로 높아졌다가 2000~2003년간에는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이르러 소득 불균등도는 다시 심화된 것으로 계측되었다. 소비지출과 식료품비의 경우 불균등도는 소득보다 낮았으나 변화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근로자가구의 5분위 배율값



주: 5분위 배율값은 모두 1인당 소득, 소비지출, 식료품비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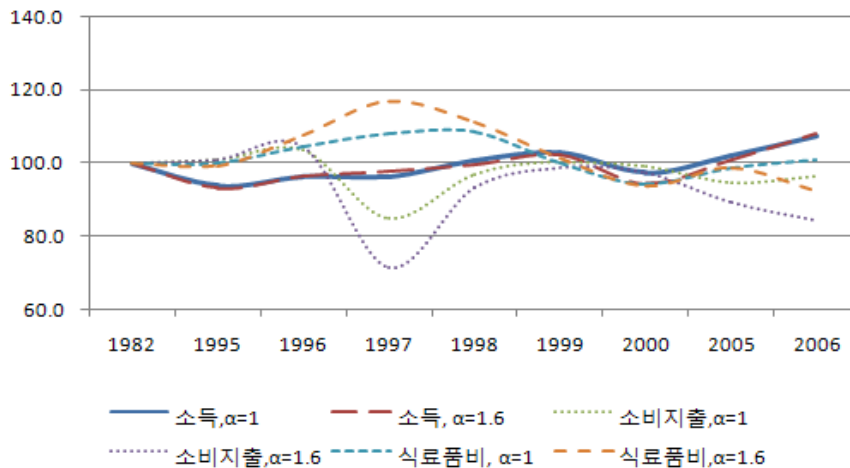
3.2. 식료품비의 양극화(EGR 지수)

소득 불균등 척도로 나타낼 수 없는 계층별 이질성을 포함한 소득분포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서 Estrban, Gradin and Ray(EGR)의 개선된 양극화 지수를 사용하였다. 1998 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지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소비지출과 식료품비에서는 양극화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양극화는 2005~2006년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지출과 식료품비에서는 양극화의 뚜렷한 증 가추세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소비 지출이 당기 소득 이외에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고, 필수재화적인 성격이 강한 식료품의 경우 당 기 소득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재화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양극화 지수

연도	소득		소비지출		식료품비	
	$\alpha=1$	$\alpha=1.6$	$\alpha=1$	$\alpha=1.6$	$\alpha=1$	$\alpha=1.6$
1982	0.138	0.064	0.131	0.061	0.110	0.047
1985	0.139	0.064	0.133	0.063	0.113	0.048
1990	0.119	0.051	0.141	0.068	0.111	0.048
1995	0.129	0.059	0.132	0.061	0.110	0.046
1996	0.133	0.061	0.135	0.064	0.115	0.050
1997	0.133	0.062	0.111	0.044	0.119	0.055
1998	0.139	0.063	0.127	0.057	0.119	0.052
1999	0.142	0.065	0.131	0.060	0.110	0.047
2000	0.134	0.060	0.129	0.059	0.104	0.044
2001	0.137	0.063	0.133	0.062	0.103	0.043
2002	0.142	0.067	0.129	0.059	0.105	0.045
2003	0.135	0.060	0.120	0.052	0.108	0.045
2004	0.139	0.063	0.121	0.053	0.106	0.044
2005	0.141	0.064	0.124	0.054	0.108	0.046
2006	0.148	0.069	0.126	0.051	0.111	0.043
1985~1997 평균지수	0.132	0.060	0.130	0.060	0.113	0.049
1998~2006 평균지수	0.140	0.064	0.127	0.056	0.108	0.045

그림 3. 양극화 추이(1980=100)



4. 식품류별 불균등도 분석

4.1. 식품류별 불균등도 추이

식품비 지출액을 식품류별로 구분하여 불균등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식품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불균등도는 199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식품류별로는 특성에 따라 다른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균등도는 연도별 변동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식품류별로 추세에 있어서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채소류, 육류, 어패류, 과일류는 외환위기 이후 불균등도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차·음료·주류와 낙농품은 해마다 변동은 있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외식비의 경우는 다른 식품류와 달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불균등도가 크게 완화된 후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2005년 이후 다른 식품류와 마찬가지로 불균등도가 심화되었다. 외식 지출의 분포가 과거보다 균등해진 이유는 소득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생활 속의 외식문화가 사회 각 계층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원자료 분석결과, 외식을 하지 않은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982년 40.2%에서 2006년 6.5%로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 식품류별 불균등도 추이(199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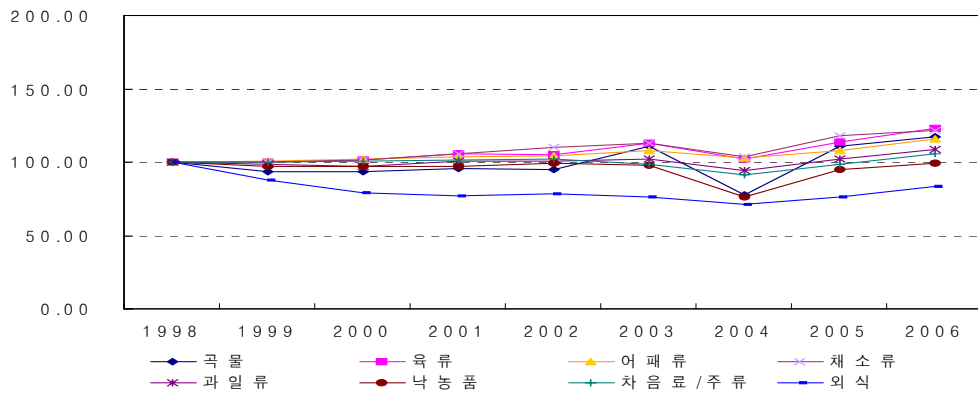


표 3. 연도별 외식을 안하는 가구 비중

(단위: %)

	외식을 안하는 가구
1982	40.0
1985	34.0
1990	12.4
1995	7.7
2000	3.7
2005	3.9
2006	6.5

자료: 통계청

4.2. 식품류별 불균등도 기여율

식품류별로 전체 식료품비 지출의 불균등도 추세에 얼마큼 기여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식 (7)의 기여도 산출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식품류별 기여도 추이를 살펴보면 외식지출을 제외하고 가정 내 지출 품목이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곡류, 육류, 채소류의 감소폭이 컸으며 외식의 경우는 가구별로 그 지출규모의 차이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비중의 증가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외식의 식품비 지니 계수에 대한 기여율은 1985년 13.7%에서 2006년 53.9%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즉, 식품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불균등도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외식비 변화 추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식품류별 기여도 추이

	곡물	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낙농품	차·음료·주류	외식
1985	0.190	0.163	0.092	0.075	0.075	0.035	0.048	0.137
1990	0.135	0.129	0.100	0.057	0.080	0.025	0.034	0.310
1995	0.055	0.110	0.095	0.048	0.081	0.015	0.032	0.447
2000	0.051	0.103	0.076	0.036	0.067	0.022	0.035	0.495
2001	0.051	0.090	0.078	0.032	0.068	0.024	0.035	0.498
2002	0.029	0.094	0.069	0.034	0.062	0.019	0.038	0.534
2003	0.021	0.076	0.057	0.038	0.056	0.024	0.040	0.568
2004	0.022	0.085	0.078	0.046	0.070	0.021	0.040	0.483
2005	0.030	0.078	0.054	0.037	0.066	0.025	0.038	0.549
2006	0.024	0.078	0.056	0.036	0.069	0.025	0.040	0.539

5. 결론

이 연구는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불균등도·양극화 현상이 소비 및 식료품 소비지출에도 나타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1982~2006년간 통계청 가계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여 지수분석을 통해 각각의 추세를 비교하였다. 불균등도 척도로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추정하고 양극화 분석을 위해 EGR지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식품류별(곡물, 과일류, 채소류, 어패류, 낙농품, 육류, 차·음료·주류, 외식)로 식품비 불균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에서는 불균등도와 양극화 지수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반면, 식료품비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와 양극화 정도는 소득에 비해 낮았으며, 외환위기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비지출과 식료품비의 불균등도와 양극화 정도는 200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후생의 불균등도와 양극화 현상에 보다 주목해야 할 시기는 2005년 이후로 보여진다.

식품류별로 구분하여 불균등도 추이를 검토하면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채소류, 육류, 어패류, 과일류는 불균등도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차·음료·주류와 낙농품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외식비의 경우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이 식품비 지출의 지니계수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식품류별 불균등도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가정 내 품목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식의 기여도는 1985년 13.7%에서 2006년 53.9%로 크게 확대되었다.

식품류별 불균등도 분석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은 2005년 이후 외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식품류 불균등정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외식비 비중이 절반 가까운 수준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비의 불균등도가 확대될 경우 식품비의 불균등도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식품소비에서 불균등 및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계층을 차별화한 마케팅 전략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쌀의 경우 저소득계층과 대량 수요처인 외식부분을 표적으로 하는 가격경쟁력 있는 시장과 맛, 안전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고품질시장으로 차별화하여 정책 및 마케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외식시장에서도 고소득계층을 겨냥한 건강 지향과 고급화 경향과 저소득계층을 겨냥한 저가 브랜드가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식품비 지출을 대상으로 불균등도와 양극화 현상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려면 엔트로피 분해, 울프슨 지수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결과를 빈곤층 및 소득 최상위계층 등 구체적인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구입행태와 연계되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신욱, 신영석, 이태진, 강은정, 김태완, 최현수, 임완섭. 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용. 2006. “지니계수분해법의 의한 식품소비 구조의 변화분석.”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남상섭, 신범철, 안병룡. 2005.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와 불평등 요인분해”. 『창업정보학회지』, 18(2): 159-183.
- 민승규. 2006.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 배성중, 이상호. 2006. “소득분배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안중범, 석상훈. 2006.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 『응용경제』, 18(2): 47-78. 한국응용경제학회.
- 성명재. 2002.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신관호, 신동균. 2007.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13(4): 64-108. 한국금융연구원.
- 신동균. 2006.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1(13): 63-80. 한국노동연구원.

- 신동균, 전병유. 2005.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28(3): 77-109. 한국노동경제학회.
- 유경준. 2007a.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 유경준. 2007b.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KDI 정책포럼.
- 이계임, 한혜성, 손은영. 2007.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 2006.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채구목. 2007.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9(1): 199-211.
- 최희갑. 2002.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8(2). 한국국제경제학회.
- 홍종학. 2006. “양극화와 경제구조개혁.” 『응용경제』. 8(2). 한국응용경제학회.
- Duclos, J.Y., Esteban, J. and Ray, D.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6) :1737-1772.
- Esteban, J.M., Ray, D.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4): 819-851.
- Lerman, R. and S. Yitzhaki.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151-156.
- Wolfson, M.C. 1994. “When Inequalities Divers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353-358.

원고 접수일: 2008년 3월 14일 원고 심사일: 2008년 3월 26일 심사 완료일: 2008년 5월 9일
--